

성 프란치스코의 순례지(아시시 중심)

1. 성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서

표기:

라틴어: Sanctus Franciscus Assisiensis, 이탈리아어: San Francesco d'Assisi

축일: 10월 4일

출생 및 사망년도: 1181/1182년~1226년

신분: 부제, 설립자, 증거자

활동지역: 아시시(Assisi)

업적:

A. 끈뚱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창설: 1209년에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그의 첫 동료들이 교황 인노첸시오 3세에게 복음적 생활 양식을 구두로 공식 인가 받음.

B. 태양의 찬가: 죽음 직전에 지으신 찬미가. 식물, 동물, 무생물들과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는지에 대한 타인의 기록이 남아있다. 그중 어느 날 성 프란치스코께서 길을 가다가 나무에 모여 있는 새들을 보고 멈춰서서 설교한 일화가 유명하다.(새와 함께 계신 그림이 많은 이유)

C. 술탄과의 만남(무슬림과 평화의 일치): 1219년 성 프란치스코는 5차 십자군 전쟁 중 이집트 다미에타에서 술탄 말렉 엘 카멜을 만났다. 둘은 서로의 겸손과 평화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에 서로를 환대하고 평화로운 대화를 나누었다. 이는 종교 간 대화의 중요한 사례로 남아있다.

D. 인준받은 회칙(Regular Bullata) 작성: 1223년 11월 29일, 교황 호노리오 3세는 성 프란치스코가 작성한 회칙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E. 성흔(Stigmata)의 기적: 1224년 9월 14일, 성 프란치스코는 기도 중 성흔이라 알려진 십자가의 상처를 받았다.

F. 교회 역사상 최초로 구유를 제작하고 구유 예식을 거행: 1223년 11월, 성 프란치스코는 그레치오의 동굴을 보고 문득 베들레헴을 떠올렸다. 베들레헴의 정경을 닮은 그곳을 보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장면을 생생히 재현하고 엄숙히 기념하고자 요한의 도움을 받아 베들레헴의 마구간을 본뜬 소박한 구유를 만들었다.

사진:



2. 아시시에 대해서

표기:

이탈리아어: Assisi, la Basilica di San Francesco e altri siti Francescani

한국어: 아시시의 산 프란체스코 성당과 수도원 유적지

위치: 이탈리아 중부의 도시. (국가: 이탈리아, 주: 움브리아, 도: 페루자)

시간대: 우리가 가는 여름엔 서머타임 적용시 한국이 아시시보다 7시간 빠름

특징: 아시시는 성 프란치스코의 역사적, 종교적 중요성/ 건축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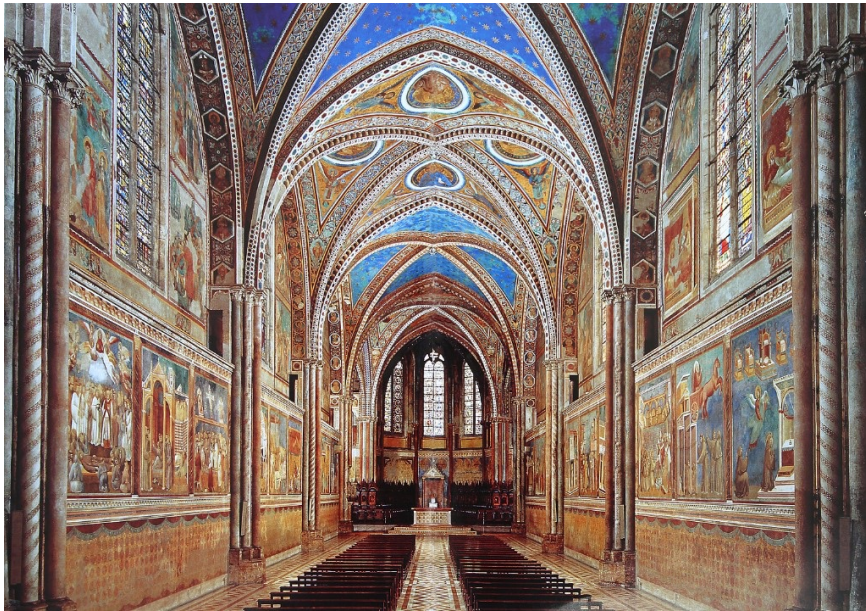
중세 도시의 보존 상태/ 성 프란치스코 정신과 자연 경관 등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2000년에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됨.



3.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

- 1228년 7월 16일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성 프란치스코를 시성하였고 이를 기념하고자 성당 건축을 명령했다. 1230년 하부 성당을 건축하고 성인의 유해를 성당에 안치하였고, 1253년 완공되었다.
- 성당 건물은 석회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경사면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상하2층의 모습, 상부 성당과 하부 성당으로 나뉜다.
- 상부성당은 고딕 양식이며, 넓고 밝은 내부를 가지고 있다. 조토 디 본도네와 그의 제자들이 그린 총 28점의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담은 프레스코 벽화가 신랑 좌우 벽면에 그려져있다.
- 하부 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이며 더 어둡고 경건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성 프란치스코의 무덤이 안치돼있다.
-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프란치스코 성인의 정신(청빈, 평화, 자연 존중)을 상징하는 장소이며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중심지이다.
- 1997년 9월 26일, 이탈리아 움브리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상부 성당의 프레스코 벽화가 산산조각났다. 아직도 8만개 가까운 파편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지금까지도 복원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4. 산타 마리아 델리 안젤리 대성당

- 1569년~1679년 사이에 건설되었다. 교황 피우스 5세가 포르치운콜라를 보존하기 위해 지었다.
- 포르치운콜라 예배당(Portiuncula Chapel): 성당 내부 중심부에 있는 작은 예배당으로 성 프란치스코가 기도하고 수도회를 시작한 곳이다. 1209년, 성 프란치스코는 이곳에서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창설했다.
- 1216년, 성 프란치스코는 포르치운콜라 예배당에서 기도하던 중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환시를 보고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이가 죄의 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교황 호노리오 3세를 찾아가 포르치운콜라 대사면을 공식적으로 허락받았다. 당시에는 면죄부 판매가 성행했는데 성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자비는 누구에게나 돈을 받지 않고 주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원래는 8월 2일 포르치운콜라 대축일에만 적용되었으나 이후 교황님들에 의해 확장되어, 매일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대사면이 되었다.
- 성당 내부에는 성 프란치스코가 1226년에 선종한 작은 방이 있으며 현재 성 프란치스코 선종 경당(Transito Chapel)으로 보존되고 있다.
- 성당 외부는 르네상스 양식이지만 내부는 화려한 바로크 장식으로 구성돼 있다.
- 1832년과 1997년 지진으로 인해 크게 파손되었지만 현재는 모두 복구되어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의 르네상스 스타일이 아닌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재건되었다.



포르치운콜라 외부

5. 산 다미아노 성당

- 1205년, 젊은 성 프란치스코가 이곳에서 기도하던 중 십자가의 예수님으로부터 “가서 쓰러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는 그 말씀을 듣고 부유한 상인의 외아들로 태어나 보내던 방탕한 기존의 삶을 버리고 가난하고 겸손한 삶인 청빈을 선택하여 이 성당을 직접 수리하면서 수도 생활을 시작했다.
-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성당 내부에는 산 다미아노 십자가의 복제품이 있다. 원본은 현재 성 클라라 대성당에서 보관중이다.
- 산 다미아노 십자가는 성 프란치스코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십자가로 비잔틴 양식의 아름다운 프레스코화가 그려진 십자가다.
-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을 따라 첫 여성 수도 공동체를 형성한 성녀 클라라의 수도 생활이 시작된 장소이다.
- 성 프란치스코 동상이 있다.

